

음식과 수행

체질과 음식 ②

현대인들이 몸 망치는 이유는  
먹이 감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인체의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계속하고 있는데 몸 전체의 세포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데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하나의 세포가 생성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태양과 산소와 물 같은 자연환경이고 그 밀바탕이 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다.

서 흡수하고 나머지만 몸 밖으로 배설하지만 사육동물은 에너지의 소비 없이 가공된 사료에 길들여져 먹이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할 수 없어서 음식물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영양분이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이다.

체질 맞는 음식 섭취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는 강하고 활발할 것이며, 체질에 맞지 않은 음식을 영양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세포는 허약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세포가 위축되면 조직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인체가 병에 걸리고 만다. 힘 있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음식을 통해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인간도 아주 옛날에는 필요한 만큼만 먹고 몸이 요구하는 영양분을 입맛으로 찾아낼 수 있었지만 점차 사육동물처럼 먹이 감각을 잃어 이제는 무엇이 자기 몸에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 것인지도 어떤 식품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먹이 감각 회복 필요

임산부의 입덧은 위에서 말한 먹이 감각이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즉, 임신을 하면 인체의 호르몬 구조가 바뀌고 태아와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대량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던 음식물이 먹고 싶어지거나 반대로 늘 먹던 것들이 갑자기 싫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먹이 감각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찾으려 하고 필요치 않거나 해로운 영양소를 피하려는 인체의 본성인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인간이 먹이 감각을 잃게 된 이유와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승우 기자



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6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종을 치고 예배를 인도하다

-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 1) 주일예배 인도하다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
  - 2) 전쟁 포로가 되어 모진 고문을 받음
  - 3) 북으로 북으로
  - 4) 필사의 탈출
  - 5) 신앙리 형무소의 독방생활
  - 6) 총살당하다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마귀는 전쟁을 일으켜 승리자(이긴자)의 씩이 될 만한 신미생 청년들을 전정터에 몰아 한꺼번에 몰살시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마귀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6.25전쟁을 통하여 이긴자를 배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연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긴자로 인정받았을 때에는, 이미 일곱째 천사의 '나'라는 주체의식이었던 마귀 영은 죽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일곱째 천사의 '나'라는 주체의식을 점령하는데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이후로 이긴자가 된 일곱째 천사는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없고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의 발자취 이야기는 일곱째 천사의 연단과정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친히 간증하는 것이지, 과거에 살았던 마귀 영이 일곱째 천사의 '나'라는 주체의식 속으로 또 다시 들어와서 지나온 일을 더듬거리며 기억해낸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1) 주일예배 인도하다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

일곱째 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였습니다. 자연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니 나이 어



30년대, 50년대 김포읍 예배당, 공산 치하 대학생이었던 일곱째 천사 조희성 남이 예배를 인도했던 김포교회

[출처] http://blog.naver.com/kikkok/220447179000

30년대, 50년대 김포읍 예배당 풍경입니다. [작성자] 국회 의원 김두관

린 시절에도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정신병자나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등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께서 20살 때, 1950년 6월 25일 남북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당은 탕크를 앞세워 남침하였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공산당에게 점령되었고, 남한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일곱째 천사는 피난 갈 생각을 못하고 고향 시골로 내려갔는데 일요일이 되어서 김포읍에 있는 장로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사는 김포 사람들도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사도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소수의 교인들이 많았는데도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일곱째 천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교회 종을 치고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공산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잡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배 인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자 인민

군이 나타나 출입구에서 일곱째 천사를 향하여 사격자세를 하고는 총을 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한 시간 반 정도의 예배를 온전히 마쳤습니다. 당시 걸음마 단계의 영적수준에 머물렀던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다 죽으면 순교가 되어 천당가는 줄 알았다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갔으면 무사했을 텐데, 일곱째 천사는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인민군이 옆에 다가와 대검을 꽂은 총으로 옆구리를 툭툭 치며 일곱째 천사를 연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곳이 면사무소에 설치한 '인민군 환영위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의 데모로 죽음을 모면하심

일곱째 천사가 인민군에게 끌려간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마을사람들이 모두 면사무소까지 와서 "이 청년은 모범적인 청년이니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며 인민군들 앞에서 데모를 하였습니다. 당시 인민군들이 점령하면서 많은 우국지사들을 잡아다 죽이면서 공포정치를 했을 때인데, 이를 알고도 마을사람들이 일곱째 천사가 인민군에게 붙들려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물려와 데모를 한 것은 공산 치하에서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그 청년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모범청년이다. 그 청년을 죽이려거든 우리를 먼저 죽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인민군 환영위원회 위원장은 일곱째 천사의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이었던 김낙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봉사심이 강하고 우등생이었던 일곱째 천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끼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제자가 총살형을 당하게 될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사랑스런 제자를 석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를 내보내게 되면 그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사람들의 데모가 있자 이를 핑곗거리로 삼아, 김낙영 선생님은 일곱째 천사를 풀어주 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김낙영 선생님을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이미 순교하겠다는 일곱째 천사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임기응변의 책략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장함으로 지혜를 얻은 김낙영 선생님은 일곱째 천사에게 권고하기를, "이 자리에서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풀려나면 나가서 전도 하면 되지!"하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환영위원회 위원장 김낙영은 인민군들 앞에서 일곱째 천사에게 조용히 타이르는 듯한 어조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하고 다니느냐? 오늘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죽을 터인데, 내가 살려줄 테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인민군에 들어와 일을 해라." 하며 내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박한수

BC1200년경 무궁화 보급을 독려하는 고조선 수막새

오염화수막새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단지파가 사용한 문자 발견

지난 746호 <BC1200년경 야훼문자가 새겨져 있는 꽃무늬수막새>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고조선을 건립한 단민족이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수막새에 새겨 넣은 것을 해석한 바 있다. 그리하여 꽃무늬수막새 이외에도 또 다른 오염화수막새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단지파가 지금으로부터 3천 2백 년전에 가나안 소라성읍을 떠나 동으로 이주할 때 무궁화 꽃씨를 한반도에 가져와서 널리 전파하고자 독려하는 내용이 원시 가나안어(Proto-Canaanite)와 올드네게브어로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현대 히브리어와 한국어로 해독해 보았다.\*

박태선 기자



오염화수막새  
출토지역: 평양 대동강 유역 (평천리 추정), 사진출처: 『朝鮮瓦塼圖譜』 2권, 도194 동편(同編)와당 소장처: 국립광주박물관(유물번호\_8464/구215), 경희대중앙박물관(유물번호\_301429-000), 일본 테츠카야마 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오염화수막새

왼쪽의 문자 해석: 오염화(무궁화)를 많이 생성시키자  
Let's create lots of five-leaves flowers



① 오염화 (the five-leaves flower):  
이파리가 다섯 갈래로 뻗어 있는 무궁화 (Rose of Sharon)를 상징

▲ 5개의 앞술머리를 새긴 무궁화수막새 (고조선) 출토지: 토성리(대동강 유역), 출처: 朝鮮瓦塼圖譜 2



④③②① 𐤓𐤏(𐤓) selfsame 똑같은, of the Same Species 같은 종(種)의

Proto-Canaanite 𐤓 + + X + + 𐤓 𐤓 𐤓 𐤓 𐤓

Old Negev of the American SW 𐤓 𐤓 𐤓 𐤓 𐤓

⑦⑥⑤ 𐤓𐤏(𐤓) inclination 생성됨, create 만들어 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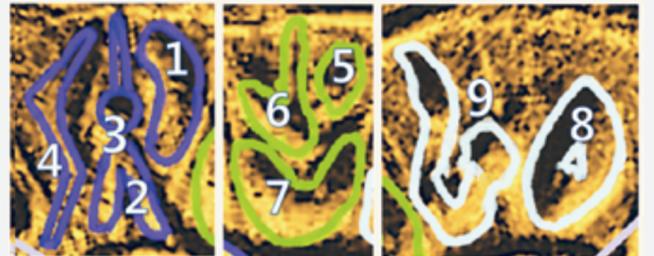
Old Negev of Israel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법문와당(우측 첫 번째): 오염화수막새에 문자를 넣기 위한 전단계의 틀/평양 평천리 출토

오염화수막새

오른쪽 문자 해석: 추위로부터 어린 가지들 보호하자  
Protect the sprigs from cold



④③②① 𐤓𐤏(𐤓) From cold 추위에서

Old Negev of Israel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Old Negev of the American SW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⑦⑥⑤ 𐤓𐤏(𐤓) sprig 잔가지, 어린 가지

Old Negev of the American SW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Old Negev of Israel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⑨⑧ 𐤓𐤏(𐤓) protect 보호하다

Proto-Canaanite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 𐤓